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2017.5.25 | 강세진_새사연 이사 | wisemaninspace@daum.net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동주최로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이 열렸다. 이 자료는 포럼에서 발표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의미 : 모기동이 살아있다」의 제출본에 자세한 설명을 단 것이다.

※ 발표자료의 최종편집본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로 문의



발제3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의미 : 모기동이 살아있다

강세진 _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발표자료 표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2

5년 간 1,500개 공동체사업을 지원했는데,
현재 **지속되는 사업**은 800개에 **불과**하다.

? ? ???

- ○○시 관계자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일까? 아니면 ‘공동체’일까?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체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를 받은 ‘사업’의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보조금이 끊긴 이후 마을의 ‘자립’ 여부로 보기도 한다. 마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창업지원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이런 시각이 적절한 것일까?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 경우에는 사업이 늘어질수록 비판 받을 것이다. 아마도 건설된 ‘도로’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1,500개 사업 중에서 800개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통계를 ‘불과’하다라고 폄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마을살이는 돈을 벌자고 하는 활동이 아니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이익을 추구하라는 요구까지 받는다. 보조금이 끊긴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을현장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과정의 연속일 것이다. 위 숫자를 보고 알아채야 하는 것은 마을현장의 맘과 노력이다. 돈을 벌겠다는 창업도 성공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사업이 60% 가까이 유지되는 것은 오롯이 주민의 의지와 노력 때문일 것이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정책지향

3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

- 서울시 조례 1조

마을공동체란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 서울시 조례 2조2호

~만들기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서울시 조례 2조3호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마을공동체의 주요 요소 : 관계

이 발표자료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2016년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한 「사회계정을 활용한 서울시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한 것은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마을 내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사업이다. 공동체사업이 결국 마을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망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4

5년 간 1,500개 공동체사업을 지원했는데,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15년 간 공동체사업을 지원한 결과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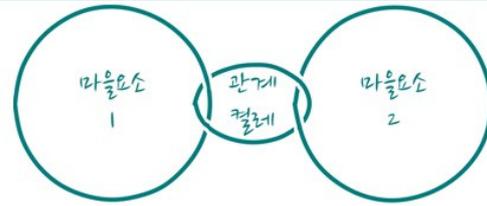
공동체사업에 대한 올바른 질문

공동체사업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올바른 질문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구하다보면 언젠가는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5



• 마을요소

- 1) 일반주민(분류적 마을주민)
- 2) 등장주민(특정할 수 있는 개인, 개별 단체 등)
- 3) 공공(지자체, 학교, 중간지원조직 등)
- 4)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마을카페, 마을공방 등 마을공간 및 마을소식지 등 연계망(이하 공간·연계망)
- 5) 마을협력체(다양한 주민의 모임, 다양한 주체의 연대체 등)
- 6) 내부업체(마을공동체 내부에 있는 업체)
- 7) 외부업체(마을공동체 외부에 있는 업체)

• 관계결레

구성요소1	관계결레	구성요소2
일반주민	모임형성 (연대감·소속감·만족감·보람 등)	등장주민
	참여·협력 (문과자·고용·복지)	마을협력체
	공간형성관리, 연계망형성관리, 참여·협력 (네트워킹·성장기반형성)	공간·연계망
등장주민	참여·협력 (네트워킹·성장기반형성)	마을협력체
	이용 (공간제공 및 소용·정보제공)	공간·연계망
일반주민·등장주민·마을협력체	보조금지원, 행정·홍간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주요 마을협력체
공공	단위모임·프로그램 (연향·연계)	마을협력체
마을협력체	구매·자출 및 인력지출 재화·용역	내부·외부업체 및 일반주민

() :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관계 유형
 - : 마을 및 공공의 노력(시간 및 금전의 투입) : - : 마을공동체 활동에 따른 결과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관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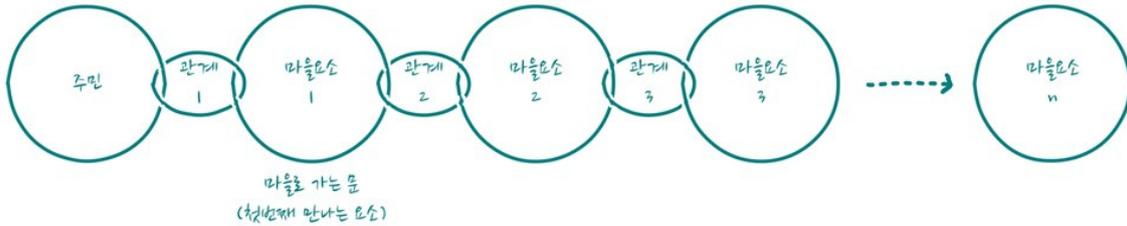
관계는 최소한, 연관된 두 주체와 둘 사이에 오가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를 맺는 주체를 7개의 ‘마을요소’로 정의하고, 마을요소 사이에 오고가는 무엇을 ‘관계결레’라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주민과 등장주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주민은 ‘모임형성’이라는 행동을 통해 등장주민이 되고, 그에 따라 ‘연대감, 소속감, 만족감, 보람 등’을 얻게 된다.



관계확산(영향사슬) = 공동체활성화

6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관계의 확산이 공동체활성화의 기초

마을공동체 정책의 목표인 ‘삶의 질 개선’을 이루는 기초는 결국 관계의 확산이다. 거미줄처럼 뒹인 도로망이 통행을 편리하게 하듯이 질적·양적으로 잘 확산된 관계망이 사회자본을 늘리고 마을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속된 표현이지만, 관계가 마을의 ‘인프라’인 셈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향사슬’, ‘마을로 가는 문’이라는 개념을 통해 관계의 확산을 살펴보았다. ‘마을로 가는 문’은 일반주민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마을요소이다. 아마도 우연히 들른 마을카페, 웹자보를 보고 방문한 교육프로그램, 시장골목에서 진행된 마을축제 등일 것이다.



사례지역 : 모기동마을

7

구분	사업명	시기
우마프2	목2동 주민참여형 나눔도서관 만들기	2012.9 ~ 2012.12
		2013.4 ~ 2013.9
마을예술창작소	모기동 자급자족 문화발전소	2012.11 ~ 2013.2
		2013.3 ~ 2013.8
마을미디어 활성화	마을돌이의 모기동 미로게임	2013.7 ~ 2014.2
마을미디어 활성화	모기동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2013.8 ~ 2013.12
		2014.5 ~ 2014.11
우마프1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기동 기억을 기록하다' PART I	2014.4 ~ 2014.8
우마프2	모기동 4TH 마을축제, <서 말의 구슬을 보배로 만드는 101가지 방법>	2014.6 ~ 2014.11
마을예술창작소	모기동문화발전소	2015.5 ~ 2015.12
		2016.5 ~ 2016.12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모기동마을학교	2015.2 ~ 2015.12
		2016.2 ~ 2016.12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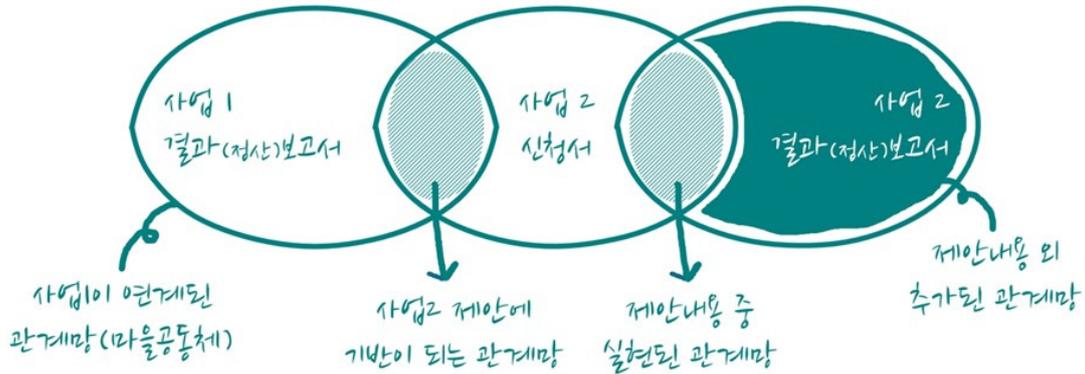
마을공방에서 마을학교로 관계가 다채로워지고 있는, 모기동마을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기동마을에서 진행된 공동체사업의 일부이다.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업의 자료를 구하지 못했지만, 위의 사업자료만으로도 관계의 역동성을 맞보기에 충분했다.



기록사슬

8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민들이 남긴 기록의 연계

공공보조를 받아 공동체사업을 진행한 주민은 사업신청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사업의 토대가 되었던 관계망이 이후 사업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적할 수 있다. 비록 사업은 1~2년 진행되지만, 관계망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등장주민

9

명칭	기록상 첫 등장	유형				마을연합체사업 — 등장주민
		등장주민	공공기관	광안연합	마을연합체 내부업체	
공동육아팀	2015	○				
기린청소년센터	2011	○		○		
나무도예방	2005	○		○		
나무와술	2007	○		○		
나무와술협동조합(소주)	2012	○		○	○	○
농색어아-회	2014	○				
뜨락	2015	○		○		
마리아의말수도회	2011	○				
마을공방들	2012	○		○		
마을들이	2012	○				○
마을학교PD, 보조PD	2015	○				
모기동마을학교	2015	○			○	○(협동조합)
모기동문화발전소	2012	○		○		○
목2동시장상인	2013	○				
부모커뮤니티	2012	○				○
섬울지역아동센터	2013	○				
숙영원	2010	○		○		
어말의청년문화공간창형형	2010	○		○		
아카이보팀(이것저것)	2013	○			○	○
양동중학교	2012	○				
양화초등학교	2012	○	○	○		
어린이책시민연대	2012	○				
영일고등학교	2011	○	○			
잠꾸러앤드사뿐나 게스트하우스	2016	○				
콩세알	2012	○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2009	○				
행복가게	2012	○		○		○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모기동마을에 등장한 주민

공동체활성화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주민을 마을에 등장시키는 것이다. 기록을 통해 모기동마을에 등장한 주민을 추려보면 위와 같다. 이들은 마을살이에 참여하고, 마을공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때로는 마을에서 장사하던 주민이 마을살이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며, 공동체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협력체가 협동조합이 되면서 등장주민으로 역할하기도 한다.



마을공간

10

구분	영향을 주는 쪽	관계유형	영향을 받는 쪽	첫 기록
1	기린청소년센터	공간제공	마을주민(청소년)	2011
			대안고실	2013
2	나무도예방	공간제공	모기동마을축제	2014
			모기동문화발전소(손작업사무용프로젝트)	2012
			아기하늘아울극장	2013
3	나무와술	공간제공	경계지킴	2012
			모기동마을학교	2016
			모기동문화발전소	2012
			아기하늘아울극장	2013
			청소년문화동아리	2013
4	드락	공간제공	마을주민	2008
			모기동마을학교	2016
5	마을공방들	공간제공	모기동문화발전소	2016
			모기동문화발전소	2012
6	숙영원	공간제공	(문화)반·동네문화사업(문화)프로젝트(손작업사무용프로젝트)	2014
			모기동마을축제	2012
			죽오작방	2012
			숙영원스튜디오	2013
			아카이브	2013
			아기하늘아울극장	2013
7	아들의청소년문화공간창형	공간제공	주민모임	2011
			네트워킹·생각현형성	2010
			클러스터네스1도씨	2010
			대안고실(오리고실)	2013
8	양화초등학교	공간제공	마을들이	2012
			마을주민(청소년)	2010
			모기동마을학교	2016
			아기하늘아울극장	2014
			모기동문화발전소	2012
9	행복가게	공간제공	주민참여공간(디자이너)	2012
			청소년축제	2013
			모기동마을축제	2014
			모기동마을학교	2016
			마을주민	2013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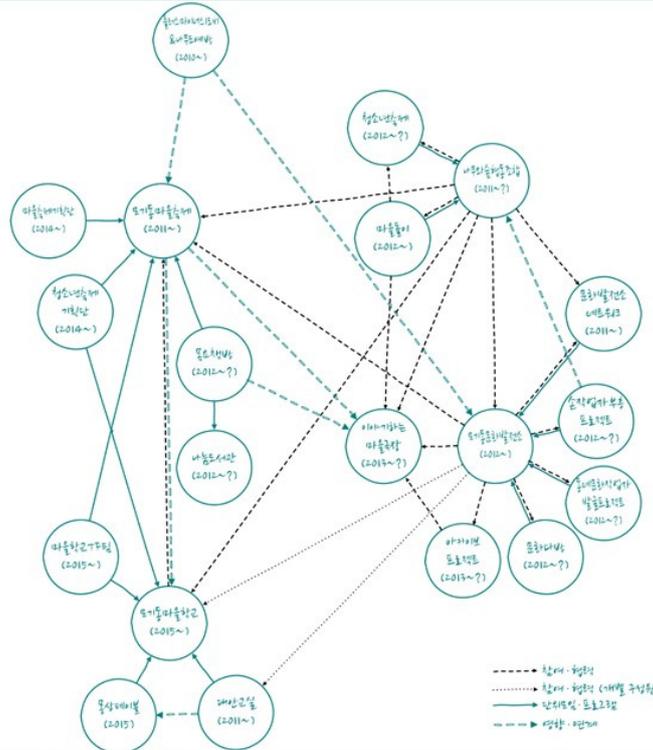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모기동마을의 마을공간

모기동마을에서 마을살이가 활성화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마을공간이다. 토지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우리 현실에서 기억과 역사와 의미가 깃든 장소들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길게는 10년 넘게 마을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마을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지킴이들의 노력은 제대로 평가되고 존경 받아야 마땅하다.



마을협력체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모기동마을 마을협력체의 전개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마을공방이었던 나무도예방과 플러스마이너스1도씨가 마을학교로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일부 자료만 살펴본 결과이니, 실제로는 훨씬 역동적인 관계가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마을로 가는 문

12

참여자	기록상 첫 등장	마을로 가는 문 (일반주민 참여시기)	최종 요소(동장주민, 공간, 마을협력체 등)		
일반주민	2007	나무와숨 (2007 ~)	경제지갑 공동육아팀 나무도예방 녹색어머니회 미래아이발수도회 마을공방들 마을학교PD 목2동시장상인 보조PD 무모커뮤니티 샘물지역아동센터 양동중학교 양화초등학교 어린이책사민연대 영일고등학교 자치구 참구리멘드사브나 주민모임 주민참여공간디자인 지역전문가 청소년문화동아리 흥세암 플러스아카데미 플미-나무도예방 협력회자 【총 25개】		
	2008	마을소식지 (2008 ~ 2013, ~ 7)			
	2009	숙명림 (2009 ~)			
	2010	아일의청소년문화공간창출형 (2010 ~)			
	2011	가린원스년센터 (2011 ~)			
		모기동마을축제 (2011 ~) - 마을축제기획단 (2015 ~)			
	2012	나무와숨협동조합 (2012 ~) 나눔도서관 (2012 ~ 2013, ~ 7) - 목요책방 (2012 ~ 2013, ~ 7) 마을돌이 (2012 ~) 모기동문화발전소 (2012 ~) - 문화책방 (2012 ~ 2013, ~ 7) - 문화발전소네트워크 (2012 ~) - 동네문화작업개발프로젝트 (2012 ~ 2013, ~ 7) - 손작업사부흥프로젝트 (2012 ~ 2013, ~ 7) 밭그림공예회 (2012 ~ 2013, ~ 7) 행복가게 (2012 ~ 2016)			
		2013		라온제나 (2013) 생각마법 (2013) 숙명림수다모임 (2013 ~ 7) 아카이브 프로젝트 (2013 ~ 2014, ~ 7) 이야기하는마을극장 (2013 ~ 7) 청소년축제 (2013 ~ 7)	
				2014	대안교실 - 오리교실 (2014 ~ 2015, ~ 7) 프락 (2014 ~)
					2015

일반주민과 연결되지 않은 요소
 교육장: 나무와숨-양화초,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사:
 서울시아울센터; 자생단: 자치구사경센터, 주민센터; 줄기는사탁
 【총 10개】 ※ 주로 지원기관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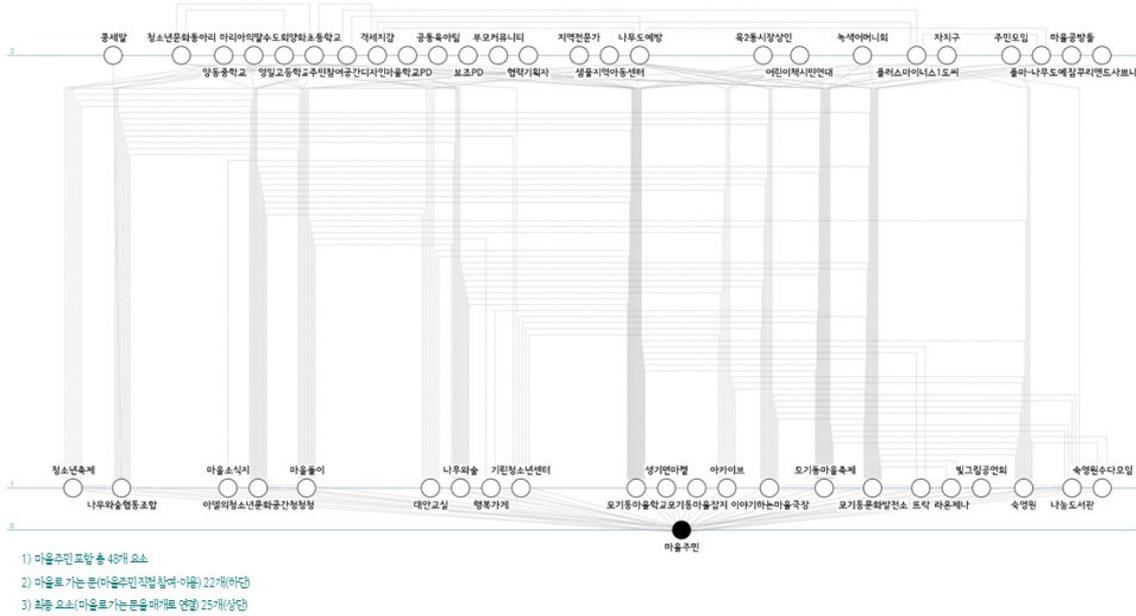
일반주민이 처음 만나는 요소

‘마을로 가는 문’이라는 개념은 일반주민이 마을살이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일반주민의 참여가 있었다는 구체적 기록이 있는 것만 추려서 정리하면 위와 같다. 따라서 기록되지 않은 ‘마을로 가는 문’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영향사슬구조

13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반주민 중심의 마을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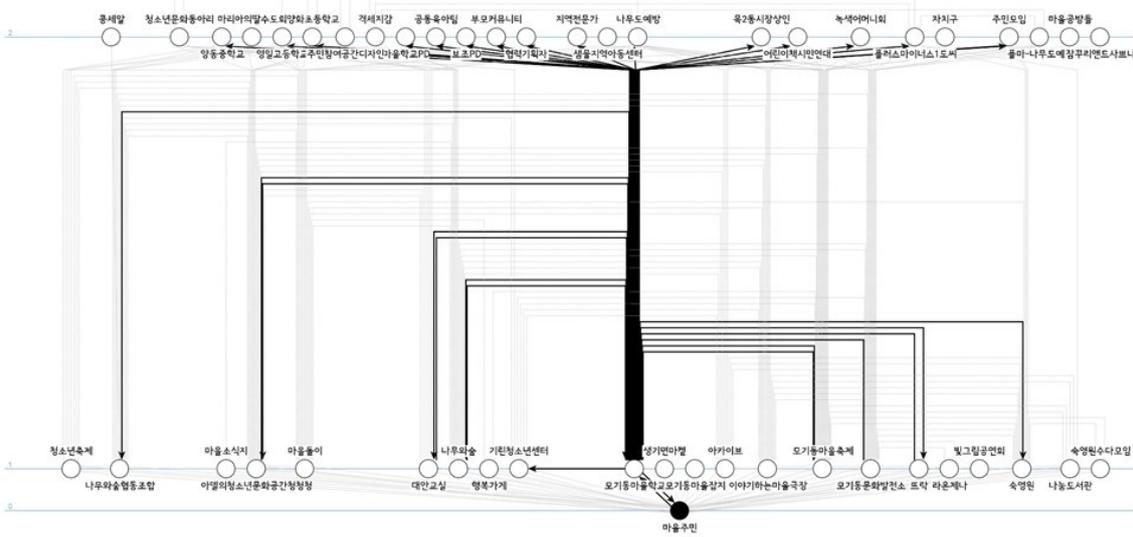
일반주민 중심의 마을관계망을 표현하면 위와 같다. 6컷에서 개념화한 영향사슬의 실제 모습이다. 마을주민이 일반주민을 뜻하며, 그 바로 위에 있는 요소들이 ‘마을로 가는 문’에 해당한다. 마을주민과 ‘마을로 가는 문’을 매개로 연결되는 것이 상단에 있는 최종요소이다. 마을주민 외에 모든 요소가 2단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모기동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은 2단계만 거치면 위의 모든 요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영향사슬구조(모기동마을학교)

15



직접연결 (영로개수 1)	공동육아팀·기린청소년센터·나무도예방·나무와술·나무와술협동조합·녹색어머니회·대안고실드락·마을학교·PD·모기동마을축제·모기동문화발전소·육구동시장상인·보조PD·부모커뮤니티·속명원·아일랜드·청소년문화공간청청향·영동중학교·영일고등학교·어린이책시인연대·영일고등학교·주민모임·지역전문가·플러스아이니스1도씨·협력기획자 【총 24개】 ※ 46개 중 52%
간접연결 (영로개수 2)	전세지갑·나눔도서관·라운지·나무와술·마을공동체·마을놀이·마을소식지·모기동마을잡지·빛그림공연회·샘물지역아동센터·생기면아일랜드·속명원·수디모임·여카이브·아이리(하)는마을극장·자치구·잡꾸리엔드사브나·주민참여공간디자인·청소년문화동아리·청소년축제·공생달·플마·나무도예방·행복가게 【총 22개】 ※ 46개 중 48%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모기동마을학교를 거치는 마을관계망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시작된 모기동마을학교는 그 동안 축적된 마을관계망의 중요한 축이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과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2단계만 거치면 위의 모든 요소와 연결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주민들의 노력(마을살이)

16

- ① 운영주체활동
- ② 콘텐츠(서비스)제공
- ③ 교육
- ④ 공동작업(체험형콘텐츠)
- ⑤ 공간운영(공간지기)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민노력의 유형

마을살이는 여러 성격의 활동들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①모임·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의 활동이 있으며, ②마을주민들에게 콘텐츠(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있다. ③한편으로는 공공지원의 조건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며, ④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해줘야 하는 일도 있다. ⑤그리고 마을공간을 운영하는 공간지기로서의 활동도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모기동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살이에 쏟은 노력을 정리하였다.



운영주체활동

17

주프로그램	시기	회당참여자(인)	평균참여자(인)	진행횟수(회)	진행시간(시간)	총 참여시간(인·시)
격세지감	2012	3	3.0	4	2	24
나눔도서관	2012~2013	5	5.0	20	2	200
나무와술협동조합	2012~2016	4~14	7.3	125	2~3	1,114
대안고실	2011~2016	3	3.0	72	2	432
라운제나	2013	1	1.0	4	2	8
마을돌이	2012~2013	1~5	2.0	21	1~2	69
모기동마을축제	2011~2015	3~67	14.5	74	2~5	2,501
모기동마을학교	2015~2016	2~30	18.0	114	2~4	3,924
모기동문화발전소	2012~2016	7~13	9.0	42	2	732
빛그림공연회	2012~2013	10	10.0	8	2	160
생기면마켓	2013	1	1.0	4	2	8
아카이브	2014	2	2.0	5	2	20
이야기하는마을극장	2013~2014	1~11	6.6	255	0.5~2	958
주민참여공간디자인	2012	3	3.0	2	2	12
즐거는식탁	2011	3	3.0	1	2	6
청소년문화동아리	2013~2016	3	3.0	16	2	96
청소년축제	2012~2013	3	3.0	8	2	48
플마나무도예방	2010~2012	2	2.0	30	2	120
계	2010~2016	1~67	7.9	805	2.1	10,432인·시 1인당 1,321시간 연간 189시간 월간 16시간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모임 · 행사의 기획 · 운영 : 10,432인 · 시

이 연구에서 주민들의 노력은 ‘인·시’로 정리되었다. 참여자 수에 참여시간을 곱한 것이다. 만약 100인·시라면 100명이 1시간을 투여한 것일 수도 있고, 1명이 100시간을 투여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전자와 후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즉 주민의 노력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모임 · 행사의 기획 · 운영에 들인 노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432인·시에 달한다. 1인당 1,321시간을 들인 것에 해당하고, 연간 189시간, 월간 16시간에 해당한다.



콘텐츠(서비스)제공 및 교육

18

○ 콘텐츠(서비스)제공

주프로그램	시기	회당참여자(인)	평균참여자(인)	진행횟수(회)	진행시간(시간)	총 참여시간(인·시)
나눔도서관	2012~2013	60	60.0	21	0.5	630
나무와숲협동조합	2012	19~21	20.0	24	1~2	708
마을돌이	2012	8	8.0	1	2	16
모기동마을축제	2014	51~220	135.5	2	0.25~1.5	132
모기동문화발전소	2012~2016	22~26	24.7	10	2	472
빛그림공연회	2012~2013	41	41.0	2	2	164
이야기하는마을극장	2013~2014	37	37.0	8	2	592
콘텐츠(서비스)제공	2012~2016	8~220	48.6	68	1.5	2,714인·시 1인당 56시간 연간 11시간 월간 1시간

○ 교육

주프로그램	시기	회당참여자(인)	평균참여자(인)	진행횟수(회)	진행시간(시간)	총 참여시간(인·시)
모기동마을학교	2015~2016	20	20.0	22	2	880
모기동문화발전소	2015~2016	26	26.0	2	2	104
교육	2015~2016	20~26	21.5	24	2	984인·시 1인당 46시간 연간 23시간 월간 2시간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콘텐츠(서비스)제공 및 참여 : 2,714인·시

교육 및 참여 : 984인·시

콘텐츠(서비스)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에 제공자 또는 참가자로 들인 노력은 위와 같다. 다른 활동에 비해 투입된 노력의 양이 적은 편이다.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나뉘는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에서 많이 쓰이지 않거나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공동작업(체험형 콘텐츠)

19

주프로그램	시기	희당참여자(인)	평균참여자(인)	진행횟수(회)	진행시간(시간)	총 참여시간(인·시)
격세지감	2012	11~21	16.0	15	3	795
나눔도서관	2012~2013	13~176	86.0	53	0.05~2	1,099
나무와숲협동조합	2012~2016	17~49	28.8	68	3	4,200
대안교실	2011~2016	18	18.0	72	3	3,888
라운제나	2013	21	21.0	2	2	84
마을돌이	2012~2013	16~51	24.4	43	2~3	2,237
모기동마을축제	2014	38~263	149.0	6	0.25~2	529
모기동마을학교	2015~2016	26~52	43.3	55	2	5,050
모기동문화발전소	2013~2016	7~21	14.8	50	2~3	1,968
생기면마켓	2013	120	120.0	2	0.25	60
아카이브	2014	18	18.0	6	2	216
이야기하는마을극장	2013~2014	17~100	58.5	3	0.5~2	118
주민참여공간디자인	2012	18	18.0	2	3	108
청소년문화동아리	2013~2016	13	13.0	96	2	2,496
청소년축제	2012~2013	23	23.0	8	3	552
계	2011~2016	7~263	38.5	481	2.2	23,400인·시 1인당 608시간 연간 101시간 월간 8시간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공동작업(체험형 콘텐츠)에 참여 : 23,400인·시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들이는 노력의 양은 앞서 살펴본 제공자와 수혜자가 나누는 전형적인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6배가 넘는다. 마을살이의 재미는 직접 참여에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공간운영(공간지기)

20

마을공간	시기	회당참여자(인)	평균참여자(인)	진행횟수(회)	진행시간(시간)	총 참여시간(인·시)
나무도예방 마을공방	2005~2016	1	1.0	2,880	1	2,880
뜨락 주택협동조합	2015~2016	12	12.0	24	2	576
숙영원 마을카페	2009~2016	1	1.0	2,304	2	4,608
아델의청소년문화공간청청청 교육공간	2010~2016	1	1.0	1,680	1	1,680
행복가게 매장운영 협동조합	2012~2016	1	1.0	1,440	1	1,440
계	2005~2016	1~12	1.6	8,328	1.3	11,184인·시 1인당 6,990시간 연간 583시간 월간 49시간

※ 마을공방(나무도예방)은 주 5일 운영에 매일 1시간, 주택협동조합(뜨락)은 월 1일 운영회의에 회의 당 2시간, 마을카페(숙영원)는 주 6일 운영에 매일 2시간, 매장을 운영하는 협동조합(행복가게)은 주 6일 운영에 매일 1시간을 마을살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여 정리.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공간운영하기 : 11,184인·시 + α

가게운영 경험이 있다면, 어떤 공간을 지키는 활동에 많은 품이 든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그 모든 노력이 마을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손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운영활동까지 마을살이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간운영에 쏟는 시간 중 하루 1시간 정도만 직접적인 마을살이라고 가정하여 집계하였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투여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간운영의 어느 한 부분을 쪼개어 ‘이것만 마을살이다’라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장사가 잘 안되면 공간운영이 어렵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위 시간의 6~8배 정도를 마을살이에 들이는 노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지원과 지출구조

21

지출내역	나눔도서관 (2개년)		마을들이 (1개년)		모기동마을축제* (1개년)		모기동마을학교* (1개년)		모기동문화발전소** (4개년)		아카이브프로젝트* (1개년)		아기하는마을극장** (2개년)		계	
	천 원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천 원	%
합계	7,622	100%	5,200	100%	15,789	100%	45,000	100%	40,000	100%	2,320	100%	10,022	100%	125,953	100%
인적지출	4,545	60%	2,900	56%	8,084	51%	34,890	78%	23,480	59%	1,650	71%	5,302	53%	80,851	64%
음식료품	260	3%	135	3%	550	3%	1,920	4%	2,470	6%	90	4%	56	1%	5,481	4%
인쇄 등	536	7%	250	5%	2,220	14%	1,160	3%	1,900	5%	10	0%	654	7%	6,730	5%
석탄및석유제품	0	0%	0	0%	500	3%	900	2%	300	1%	200	9%	0	0%	1,900	2%
화학제품	26	0%	0	0%	964	6%	0	0%	0	0%	0	0%	66	1%	1,056	1%
금속제품	144	2%	0	0%	0	0%	0	0%	0	0%	0	0%	0	0%	144	0%
전기및전자기기	11	0%	0	0%	380	2%	0	0%	0	0%	150	6%	233	2%	774	1%
기타제조업제품	56	1%	0	0%	0	0%	0	0%	0	0%	0	0%	0	0%	56	0%
문방구 등	550	7%	124	2%	1,841	12%	1,600	4%	3,283	8%	100	4%	514	5%	8,012	6%
교통비 등	161	2%	26	1%	0	0%	400	1%	0	0%	0	0%	0	0%	587	0%
음식점 등	144	2%	317	6%	350	2%	2,680	6%	907	2%	120	5%	555	6%	5,072	4%
도서구매	754	10%	0	0%	0	0%	0	0%	0	0%	0	0%	42	0%	796	1%
이체수수료 등	31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0%
건물임대료	0	0%	0	0%	0	0%	0	0%	5,000	13%	0	0%	0	0%	5,000	4%
쓰레기봉투	5	0%	0	0%	0	0%	0	0%	0	0%	0	0%	0	0%	5	0%
공연·교육장소임대	400	5%	1,449	28%	900	6%	1,450	3%	2,660	7%	0	0%	2,600	26%	9,459	8%

* 예산서기준

** 일부 예산서기준

관제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마중물로서 공공지원 : 125,953천원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 공공지원의 규모와 지출내역은 위와 같다. 이 자료는 경제적 효과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인다.



서마을계정행렬 기본구조

22

○ 관계행렬(요소간 영향을 주고 받음)

영향 받음	영향 줄	일반주민	동장주민	공간·연 계망	마을협력 체	최종영향	내부업체	외부업체	마을기술	외부기술	공공지원 및 자부담	총 영향
		A	B	C	D	E	F	G	H	I	X	S
일반주민	1											
동장주민	2											
공간·연계망	3											
마을협력체	4											
최종영향	5											
내부업체	6											
외부업체	7											
마을소득	8											
외부소득	9											
총 영향	10											

○ 주민노력환산 : 100인·시=100만원

사명	일평균보수 (3인 가구)	1인 시간당보수	비고
2012	2300863	9128	
2013	2874371	8882	
2014	3051916	9537	* 2인·1인 가구 주요 1인 가구 7명 (내부·외부 기술자 제외)
2015	3098855	9894	
2016	3238335	10029	
합		10000	

○ 영향구조계수행렬(A) : 관계행렬 열합계에 대한 각 항의 비율

○ 영향유발계수행렬(I-A)⁻¹ : 영향유발계수행렬 × 공공지원행렬 = 영향유발 (주민참여, 경제효과)

$$(I - A)^{-1} X = S$$

(단, I는 단위행렬, A는 영향구조계수행렬, X는 외생계정행렬, S는 총 영향행렬)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모형 : 서마을계정행렬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사회계정행렬을 응용하여 만들었다. 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모형에 여러 사회·경제적인 계정을 추가하여 확장한 모형이다. 위에서 내부업체와 외부업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업연관모형에 해당한다.

사회계정행렬과 산업연관모형의 분석원리는 동일하다. 다만 사회계정행렬에서 분석되는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산업연관모형에서 고려되지 않는 계정에 의한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마을계정행렬에서 내생계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득의 경우 산업연관모형에서는 생산유발의 일부로 취급되어 더 이상의 파급효과를 불러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마을계정행렬에서는 공동체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창출된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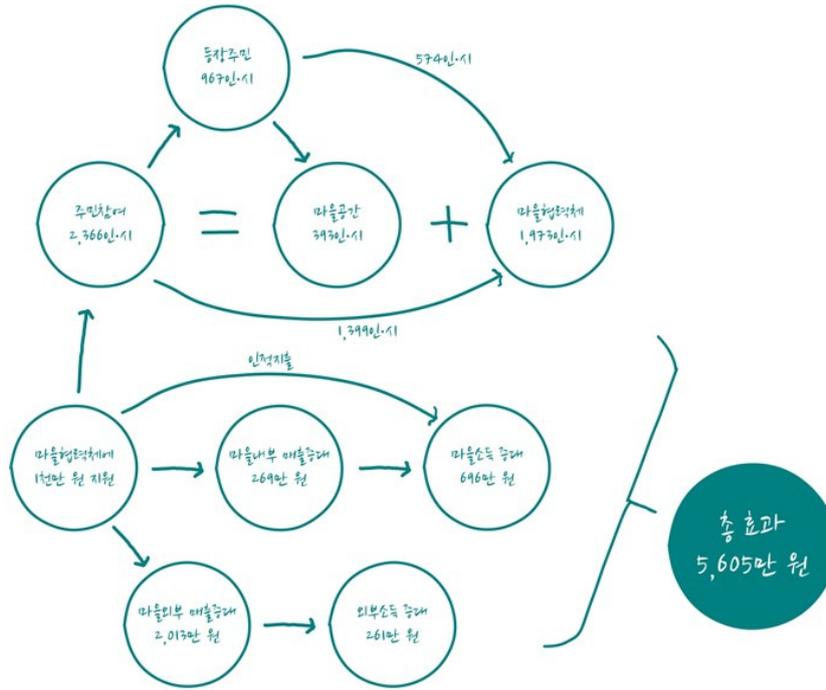
한편, 사회계정행렬을 동일한 단위로 구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노력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차후에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된 시간당 1만 원을 적용하였다. 여기에는 마을살이를 통해 주민들이 얻게 되는 만족감과 같은 무형의 효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즉, 분석되는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효과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공공지원 1천만 원의 효과

23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마을살이에 1천만 원 지원 → 5.6천만 원 효과

서마을계정행렬을 추정한 결과 마을살이에 1천만 원을 투입하면 5,605만 원 수준의 효과가 발생한다. 주민들이 얻게 되는 만족감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도출된다.

한편, 위 효과 중에서 40% 가량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논의거리(향후 과제)

24

- ① 충분한 자료의 확보
- ② 주민노력 1시간 = 1만원?
- ③ 1만원 지원 5만원 효과? 또는,
100억 지원 500억 효과?
→ 적절한 지원규모는? (마중물로써 공공지원)
- ④ 절반 이상의 효과 = 자발적 주민참여
→ 주민노력의 합당한 인정필요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둥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제 시작인 연구

이 연구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초기 연구에 해당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눈에 보이는 숫자 너머...

25

<골목은 살아가고 있다 - 살아내는 골목에서의 예술, 도시공간의 재생>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바로 골목이다. 숙영원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요소로 보아왔던 골목길이 한해한해 생생하게 살아내며 조금씩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허름한 길. 누군가에게는 밤에 걷기 무서운 길. 누군가에게는 정비하고 싶은 공간.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 골목에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살아가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 ... 이 골목에서 우리는 함께 어울리기도 했고 골목을 걷다 발견했던 공간을 우리의 공간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버티기도 했다. 우리 동네에는 요즘 다세대주택들이 앞 다투어 헐리고 새로 올라가면서 1층에는 상업시설이 가능한 공간들이 생겼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영업자들이 생겨났고 어느 샌가 숙영원의 골목에는 7~8개의 수작업자들의 공방들이 생겼다. 골목에 살아있는 것들 중 하나. 공방. 자영업자의 외로움을 손잡아준 이웃 덕에 살아났고 골목을 유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들을 지어왔던 우리들에게는 그 공방들의 등장이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반상회다. 밥을 먹고 서로 안부 묻기. 고민과 수다나누기. 일 년 동안 어색한 관계에서 이제 인사하고 밥 안부 묻는 사이가 되었다. 골목에 살아있는 것들이, 이제 협동조합이 된 숙영원, 공방들, 사람들이, 건물들이, 오래 서로 기대며 지지하며 버티기를. 하수상한 계절 그래서 더욱 추운 겨울을 서로의 온도를 나누며 살아남길. 7년을 살아왔다 아니 버텼다. 골목은 우리처럼 버텨온 것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흔적이 저마다의 추억이란 색으로 입혀지고 있다. 누군가 외부인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조금은 허름한 추억과 아름다움을 논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아래 미관을 포장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저마다의 기준에서) 그 안에 이야기나 문제를 보이지 않게 덧입히는 것이 아니다. 골목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과 세월의 흔적이 골목 곳곳에 색을 입히고 사람들이 머물렀다 헤어졌다하는 행위가 퍼포먼스가 되고 아기자기한 장인 같은 가게들이 조형물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골목을 다시 살리는 길이자, 도시를 우리의 방식으로 재생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골목에 살아있다. <살아있는 골목에서의 예술, 도시공간의 재생 |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관계와 숫자로 드러낸 마을공동체 : 모기동이 살아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모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어려운 마을현장의 역동성

이 연구가 마을주민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위와 같은 모기동마을의 역사와 역동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나름 힘들게 얻은 결과이지만 모기동마을의 깊이에 비하면 초라할 뿐이라 부끄럽다. 이 연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조그만 근거라도 되기를 바라며,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마을은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믿음에 조금은 마음이 가볍다. 

※ 발표자료의 최종편집본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7년 5월 2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경제	01/03	진짜' 경제민주화로 ⑤ 하청 중소기업, 글로벌 증견 대기업 될 수 없나?	정승일
노동	01/09	2017 전망보고서 (1) :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송민정
경제	01/12	일본은행이 선택한 화폐적 해법, 2017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송종운
복지	01/16	2017 전망보고서 (2) :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최정은
국내외 정세	01/23	2017 전망보고서 (3) : 국내외 정세, 대전환을 탐색하는 2017	박세길
세계경제	02/03	2017 전망보고서 (4) : 2017년 세계경제, "공포의 해"가 될 것인가?	송종운
마을	02/06	2017 전망보고서 (5) : 다가오는 건거의 계절, 마을살이의 운명은?	강세진
부동산	02/10	2017 전망보고서 (6) :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서는 주택시장	권순형
보건의료	02/13	2017 전망보고서 (7) :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병수
종합	02/22	2017 전망보고서 (8) : 2017년 7대 분야를 전망하다	새사연
부동산	03/0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권순형
부동산	03/10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권순형
부동산	03/1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권순형
부동산	03/23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권순형
부동산	04/1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3년을 버티며 남긴 고민들	황서연
정치	04/18	The Plan : 민주주의 깨트리기	강세진
사회정책	04/27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은경
정치	04/29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강세진
보건의료	05/02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이은경
부동산	05/10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강세진
마을	05/25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강세진